

추경 14조... 매출감소 소상공인 추가 지원

홍남기 부총리, 방역 조치 연장 따른 지원 방안 발표

“1곳당 300만원씩 약 10조원 규모... 손실보상 1.9조 확보
초과세수 10조원 활용 약 14조 규모... 결산 후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방역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경안에 13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적자국채를 발행, 이번 추경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방역 소요가 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타협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된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업종별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줄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또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은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경안 편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된 원 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행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

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제 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세수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총 초과세수가 2차 추경 기준 30조원에 육박하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때보다 많은 19조라고 밝혔지만 이보다도 10조원 더 들어온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상 4월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이어 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초과 세수를 당장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시민교육 도민 인식 개선 도, 영상 콘텐츠 오늘부터 온라인 공개

전북도는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작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개 영상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행태와 가치를 시계 위주로 제시했으며, 12편을 순서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영상은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의 의사소통, 세계시민교육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한 2차례의 정책자담회 영상으로, 전북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전북도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 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갈등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역량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도 민주시민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민 행복미래 위한 즐거운 연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복지희망포럼’ 참가자 모집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전북도 사회서비스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전북복지희망포럼’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전북복지희망포럼’은 사회서비스 분야별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기관의 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전북복지희망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며 전북도민의 행복미래를 위한 즐거운 연대를 만든다고 전했다.

포럼 참가자는 2022년 12월까지 연대를 통해 전북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성

장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출범식 및 의견 청취, 사회서비스 전문특강, 정책 세미나로 진행되며, 2월 중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orubk.pss.or.kr>)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도 출연기관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인권보호, 노무·법률·회계 등 컨설팅,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사업을 도내 사회서비스 현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시대정신·세대교체 책임자”

민주 우원식 의원, 안호영 의원
지역구서 “대선 승리 위해 함께 가자”

완주사무실 찾아 비대면 화상 특강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완주사무실을 찾은 우원식 의원(사진 왼쪽)이 비대면 화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난 14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위원장 안호영 의원)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완주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당원들과 직접 및 비대면 화상 특강을 통해 “왜 이재명인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함께 뛰는 우 의원

장이 지역위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왜 승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것”이라

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요

한 선거”라며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과거 노무현 후보(16대 대선)가 갖고 있던 시대정신의 소유자이고, 기존의 기득권과 질서를 깬 진정한 세대교체의 책임자”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이 후보는 거대 담론보다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뚝뚝한 성과’를 집중한다”며 민주당의 강령인 민주와 평화, 민생 균형발전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 지역위 특강에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농어촌본부 이재욱 상임대표의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새당 기본소득이 온다’라는 설명회도 이어졌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